

世界 각국의 情報通信市場 동향

미국

힐튼호텔등 예약 시스템 개발

아메리칸항공, 힐튼호텔, 메리어트, 버제트렌트카 등 4사가 공동으로 호텔과 렌트카의 컴퓨터예약시스템(CRS)을 곧 개발할 계획이다. 이는 4개사의 사내시스템과 서로 호환성을 유지하는 한편 旅行代理店의 기존 터미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汎用시스템이며, 다른 회사에도 개방한다. 항공, 호텔, 렌트카회사의 CRS 공동개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퍼스트유니온은행, 위성 이용

퍼스트유니온은행은 支店 사이의 은행업무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이용한다. 서비스의 향상과 제작비 절감이 주된 목적. 이 은행은 GTE 스페이스네트와 계약을 맺고 위성통신을 위한 패러볼러안테나, 기타 주변기기를 설치하며, 미국의 동남부에 있는 모든 지점을 91년까지 연결할 계획이다.

의료보험사 IC카드 도입

의료보험회사인 부루그로스프실드는 이달중 의료요금의 계산·관리용으로 마쓰시다전자제품의 IC카드를 도입한다. IC카드에는 2,000문자분의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가입회원의 ID번호, 이용상황, 의료데이터의 기록, 의료비의 결제 계산이 주요 기록내용. 이에 따라 결제작업을 2개월에서 2주간으로 단축하게 된다.

空軍 정보통신시스템 개발

미공군이 북미방공사령부의 정보통신시스템을 개량한다. 개량할 중심과제는 ① 컴퓨터시스템과 디스플레이 서브시스템의 일부 변경, ② 긴급사태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③ 전세계에 걸친 지시 제어시스템의 통신네트워크 개량 등이다.

AT & T, KDD와 제휴

日 KDD가 노무라종합연구소등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미국에 설립한 텔리하우스 인터내셔널 아메리카에 AT & T가 자본 참여, 美·日의 국제전화회사가 공동으로 통신시스템에 관련한 컨설턴트사업을 전개한다. KDD가 영국에 설립한 회사에는 이미 英BT의 출자가 결정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美·英·日 3국의 국제통신 회사가 긴밀히 제휴하게 된 것이다.

벨, 光통신용량 擴張

AT & T의 벨연구소는 光통신에서 팔루수를 400km 이상 波形을 변형시키없이 전송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이는 고립된 波長이 粒子처럼 움직여 형태를 바꾸지 아니하고 전파해 가는 소리톤이라는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서, 實用化 되면 전송용량이 현재의 수십배로 향상되는 동시에 원가 절감이 가능해진다.

航空·旅行시스템 접속

미국의 유나이티드항공(UA) 계열의 컴퓨터예약시스템(CRS)인 「아폴로(Apollo)」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여행 데이터베이스에 일본의 긴기쥬리스의 해외여행 온라인시스템이 오는 12월에 결합된다. 이것이 완료되면 방대한 예약·운항과 복잡한 항공운임계산 등의 업무가 한결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

IBM, 퍼시픽텔리시스 일부 買収

IBM이 퍼시픽텔리시스의 네트워크 관리 서비스 부문과 백텔스펙트럼 서비스를 매수한다. 스펙트럼은 非SNA 기기의 네트워크 관리를 서비스하는 것으로서, IBM은 동사의 네트워크 관리를 하는 Net View와 스펙트럼의 소프트웨어를 연결할 것으로 보인다.

GTE, 정보서비스에 진출

미국의 GTE는 전화사업관련자회사 7개사를 본사에 통

합하고 잉여 인원을 활용, 새로운 정보서비스업에 진출한다. GTE의 이번 조직통합은 지방전화회사 7개사를 전부 본사의 전화사업부문에 흡수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합리화에 의한 비용절감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새로운 정보서비스업에 진출할 인력을 자체내에서 확보하는 계획이다.

시게이트, 태국 생산 倍增

디스크드라이브의 최대메이커인 시게이트 테크놀러지(본사 캘리포니아)가 작년 9월부터 시작한 태국에서의 현지생산을 금년중에 2배이상 확대한다. 동사는 20~100MB급의 디스크드라이브를 중심으로 세계 22개국에 수출하며, IBM 등 큰 고객을 갖고 있다. 1일 생산량은 2만 5천 세트. 따라서 생산규모로는 싱가포르 공장과 더불어 2개의 세계 최대급 공장을 보유하게 된다.

유니시스, AT&T와 제휴

미국 제2의 대형 컴퓨터메이커인 유니시스가 AT & T와 제휴했다. 제휴 내용은 선마이크로시스템사로부터 반도체설계기술의 공급을 받아 AT & T의 새로운 OS인 UNIX 시스템V에 의한 고성능 컴퓨터를 제조하며, 공동으로 상품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디스크드라이브 無関稅로

미국 상무성은 최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드라이브의 완제품 및 부품 수입에 부과하던 수입관세 적용방침을 철회했다. 이는 미국 메이커가 해외공장이나 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 디스크드라이브에 대해 종전과 같이 관세를 철회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銀行POS 제한 완화

재무성은 전자은행의 규제에 관한 「기계화통첩」을 곧 개정한다. 이에 따라 은행POS(판매시점정보관리)의 점포수 제한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1개 은행이 利用契約를 맺을 수 있는 소매점은 1년간 10개의 점포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30~40개의 소매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점포수 제한이 철폐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수료에 있어서는 「受益者가 부담한다」라는 원칙이 제시되어 있을 뿐인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명시되며, 한번의 去來마다 100엔 정도를 은행이 소매점으로부터 징수하게

될 전망이다.

은행 POS란 현금카드를 사용해서 구매한 물품의 대금을 소비자의 예금구좌로부터 곧바로 인출하는 서비스로, 슈퍼마켓, 백화점, 전문점으로부터 도매상에서의 구매업무에 이르기까지 그 이용범위가 점차 넓어져 가고 있다. NTT의 CAFIS(크레딧 신용조회 시스템)로 야간·휴일의 결제를 대신해 주는 업무도 지난 4월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은행POS도 본격적인 실용기를 맞이하고 있다.

텔리터미널에 音声 전송도

내년 가을부터 商用화 서비스를 개시하게 될 텔리터미널 시스템에 대해서 데이터전송 외에 음성전송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텔리터미널 시스템이란 자동차전화와 같이 반경 3km마다 무선지국을 설치하고, 휴대용 터미널과 통신을 하는 무선시스템을 말한다. 각 무선지국은 텔리터미널의 공동센터와 연결되고, 거기서 유저의 호스트 컴퓨터까지는 전용선으로 접속한다. 공동센터에서는 패킷교환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음성주체의 MCA 무선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이 실현된다. 이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우정성의 텔리터미널 시스템 실용화 촉진협의회가 검토해 왔다. 이 검토에서 당초 데이터전송에 국한시켰던 이 시스템을 음성우편과 같은 축적형서비스로서의 음성전송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무선종사자 자격제도 재검토

경제단체연합회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제도 재검토와 현재의 전파행정을 개선하도록 우정성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촉구하기로 하였다. 이같은 조치는 経団連의 정보·통신위원회 네트워크 部会의 검토·보고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현재 무선기기의 성능이 기술진보의 성과를 반영하여 안정되어 있고, 주파수·출력 등에 조정을 따르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선종사자로서의 자격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무선국의 면허나 검사업무 등에서 간소화, 효율화를 도모,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통신분야에 AI기술 도입

우정성은 통신분야에 AI 기술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기로 하고, 최근 그 기술적 검토결과를 보고하였다.

지난해 5월 구성된 전기통신AI 기술위원회는 21세기를 겨냥한 高度情報社會의 기초가 되는 종합知的통신망(UICN)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통신분야에서의 AI기술 도입에 대한 것을 검토해 왔다. 이 위원회는 그동안의 검

토결과 AI 기술을 도입, 네트워크의 설계·운용·보수의 고도화와 知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환기의 고도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CATV망 이용 교환 실험

CATV 기초기술연구소(우정·통신성 공동의 특별인가법인)가 세계 최초의 트리(Tree)형 CATV 망을 이용한 전화교환실험을 준비 중이다. 이 연구소는 지난 3월에 발족했는데 이 연구에 앞으로 5년간 37억엔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연구소는 이미 부설, 운영중인 요코하마의 케이블커뮤니티 요코하마(CCY)를 활용하여 오는 9월부터 트리형 CATV망 실험에 착수한다. 현재 영국에서 지난달부터 서비스되고 있는 CATV 전화망이 가입전화망과 마찬가지로 1가입자 1회선인데 비하여 이 연구소가 실험하려고 하는 시스템은 하나의 터미널회선에 복수의 가입자가 접속되는 트리형이다. 이 시스템은 回線制御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 실용단계에 이른 예는 없었다. 이 연구소는 2~3년 후에는 전화교환 뿐만 아니라 디지털전화, 데이터통신, 텔레비전전화 등의 실험도 추가할 계획인데 이번 실험이 성공하면 雙方向 CATV가 광대역 ISDN의 가입자회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통신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원격검침 영업 개시

NTT 중앙텔레콤네트는 최근 원격검침 영업활동을 개시, 올 여름에는 商用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사가 제공하는 것은 LP가스, 수도 등의 미터기 원격조종 검침이다. 가스회사나 수도회사가 이 서비스에 가입, 필요한 정보를 텔레콤트롤을 이용해 수용가로부터 입수한다. 따라서 수용가의 집안에 설치하는 터미널기의 설치비용을 업자가 부담하며, 1가입자 회선마다 월 180엔의 사용료가 부과된다.

NTT 중앙텔레콤네트 이외에도 현재 일본 각 지역에는 NTT와 유사한 회사가 설립되어 있으며, 그 요금도 거의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NTT도 LCR제품 판매

NTT는 LCR (Least Cost Routing) 어댑터를 발매, 신형빌딩전화 IPC-30에 LCR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예정이다.

LCR이란 통화를 할 때 NTT와 NCC(신규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 3社の 회선 가운데 요금이 가장 싼 회선을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NTT의 이같은 조치는 LCR 제품을 도입한 유저가 NCC 회선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발매하게 된 것이다. 요금 산정 단위를 30초~1분 15초로 설정하는 것(1초단위로 가변)으로써 NTT 회선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NCC 제품은 일반적으로 3분 단위로 되어 있다.

衛星사무실 실용화

일본전기는 소프트웨어 개발작업을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衛星 사무실(세틀라이트 오피스)이라고 하는 새로운 근무형태를 실용화할 방침이다. 이것은 기존의 本社, 支社, 工場 등에 통근하기 편리한 지역에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하고, 여러가지 OA 기기와 사무실 관리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본사와 통신연결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일본전기는 지난해부터 INS 실험의 종료를 계기로 하여 세틀라이트 오피스를 실용화할 실험에 착수,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검출해 왔다. 세틀라이트 오피스는 단순히 OA 시스템을 도입만 하면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全社的인 OA 도입 계획이나 근무상황의 관리방법 등 종합적인 노우하우가 필요하다.

ISDN과 移動體통신 통합 검토

우정성 통신종합연구소는 ISDN(종합정보통신망)과 이동체통신의 통합을 검토하기로 했다. ISDN과 이동체통신을 통합함으로써 유저가 터미널에서 떨어져 있을 경우나 이동 중인 경우에도 ISDN의 부가서비스등 고도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통합은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이동체에서는 현재의 애널로그전송 음성을 디지털화 하고, 비전화계 서비스도 통합한다. 이것은 2I+C(I: 정보는 16kbps, C: 제어신호는 8kbps)로 전송하는 이동체접속서비스로서 교환기능의 노드로 전송속도, 부호화방식, 프로토콜 등을 변환한다. 제2단계에서는 ISDN 코드레스를 광역화한 ISDN 이동서비스와 이동체접속서비스가 공존하는 구성방법을 취한다.

바코드전화기 개발

바코드명함연구회(87년 7월 발족)는 최근 바코드전화기를 개발했다. 바코드전화기는 명함에 인쇄된 바코드를 읽기용 펜으로 스치거나 명함을 본체에 끼워 넣기만 하면 상대방에 전화를 자동적으로 걸어주는 것이다.

바코드 전화기는 전화기 자체에 이 기능을 미리 넣어 둔 것과 이미 있는 전화기에 덧붙이는 2개의 형태가 있다.

家電3社 VAN 공동개발

사프, 소니, 일본빅터 등 3사가 공동으로 판매점용 온라인수발주시스템 「CHO-NET」를 개발, 이달중 각각 그 계열점포에 도입한다. 3사는 연내에 약 1천개 점포에 이를 도입, 3년 후에는 약 1만개 계열점포를 연결할 예정이다.

NTT, 3년간 5조엔 투자

NTT는 90년도를 목표로 한 「中期計劃」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주요내용은 디지털통신망의 구축을 위해 3년간 5조엔의 설비투자를 실시하는 한편, 장거리등의 요금인하를 단계적으로 실행한다는 것. 즉 90년도말에는 교환기의 디지털화를 88년말의 26%에서 40%로 끌어올린다. 또한 연구개발에는 3년간 7천억엔을 투입할 계획이다.

KDD, 最大 교환기 도입

KDD는 東京과 오사카에 일본 최대규모인 국제전화용 디지털교환기를 도입한다.

새교환기는 1시간당 최대 10만콜의 전화호출을 처리하게 되는데, 수요가능 국제회선은 최대 7천회선. KDD는 해마다 40%의 비율로 국제전화회선의 이용이 늘고 있어 이 교환기 도입을 계획하게 됐는데 가동은 내년 3월 예정이다.

미쯔비시 50억엔 터미널 受注

미쯔비시전기는 일본항공으로부터 50억엔에 달하는 항공권 발권터미널을 수주했다. 이는 32비트 CPU를 탑재한 멀티웍스테이션 M3300을 베이스로 한 시스템이다.

유럽

英CATV망 전화서비스

영국에서 지난달부터 CATV망을 통한 전화서비스가 시작되었다. CATV 전화서비스는 런던 교외의 원저 케이블비전이 구역내의 주택 10만 세대, 기업유저 8천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은 영국의 NCC (신규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인 머큐리사와도 상호접속하고, BT (영국전화공사)의 시내망을 사용하지 않고 머큐리와 접속되는 바이버스로서 기능한다. 네트워크 구성은 가입전화망과 같은 1가입자 1회선의 「스타」(별) 형태의 망이다. 스타망은 쌍방향 이용이 간단한 대신 하나하나씩 CATV 센터까지 가입자회선을 끌어들어야 하므로 케이블 부설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흠이다.

西獨지멘스, 美DCA와 제휴

서독의 지멘스가 미국의 통신기기메이커 DCA와 업무제휴한다. 제휴내용은 지멘스가 DCA의 디지털통신시스템 「9000TI」를 판매하는 대신, 팩킷교환기의 판매권을 양도하는 것. 양사는 공동으로 「9000 TI」용 ISDN 인터페이스를 개발키로 했다.

유럽 페이퍼레스 거래 진척

유럽 각국에서 株券·債券을 발행하지 않는 페이퍼레스 거래가 구체화되고 있다.

덴마크의 증권거래소가 주권의 전자등록시스템을 도입한데 이어 프랑스도 지난달 모든 주권·채권의 券面폐지를 단행했다. 영국도 올연말을 목표로 새로운 시스템을 채택할 방침이다.

이 조치는 92년의 EC(유럽공동체)의 통일市場化에 대비,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개인주주의 확대에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기타

OSI 원격데이터베이스 액세스

OSI의 어플리케이션의 하나인 원격데이터베이스 액세스(RDA)의 국제규격案 성립이 내년 9월로 늦어질 전망이다. 이것은 지난 2월말 美워싱턴에서 열렸던 ISO(국제표준화기구) 소위원회 TC97/SC21(WG3)의 국제회의에서 정해진 것이다. 규격원안(DP) 자체는 예정보다 빨리 成案되었으나 그후의 표준화작업이 복잡해 東京회의(87년 6월)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9개월 가량 늦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규격(IS) 자체의 성립은 오는 90년 9월이 될듯.

소련 퍼스컴수입 움직임

소련이 퍼스컴(PC)을 수입할 움직임이다. 소련이 지난 3월 하순 미국 애플컴퓨터의 수카리회장을 모스크바에 초청해서 협의한 것이 그 구체적 움직임을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 상무성은 퍼스컴의 처 소련 수출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을 굳히고 있으며, 애플로서도 장차의 유망시장인 소련에 IBM 등 경쟁상대에 앞서서 참가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